사사기 9. 기드온 2, "힘을 빼라" [7 장 1 절-21 절]

1. 들어가기

6 장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가 미디안과의 전쟁에 임하기 전에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부수게 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제 7 장에서 우리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300 명의 용사들이 무려 135,000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기적적인 전쟁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본 장을 통해 우리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삼상 14:6) 는 말씀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_____ 스스로 ____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2 절)

1) 하나님은 전쟁에 임하는 백성의 수가 많음으로 그 수를 줄이도록 하셨습니다.

■ 미디안 군대 = 약 135.000 (8 장 10 절) But 이스라엘의 군대 = 32.000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켜,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전투 인원을 극소수로 제한시킴으로써,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고, 둘째는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인간은 항상 숫자에 의존하지만, 성도는 언제나 _____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3.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을 빼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3-7 절)

1) _____ 떠는 자는 돌아가라! - 그 결과 22.000 명이 떠나고, 10.000 이 남음.

➢ 이유는?

신 20:8,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_____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_____될까 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과 싸울 때 '두려워서 떤다'는 것은 결국 불신앙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2) _____을 꿇고 물을 마신 자는 돌아가라! - 그 결과 9.700 명이 돌아가고, _____명만 남음!

➢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이들은 먼저 자신의 갈증을 채우는 데에만 정신을 쏟은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00 명의 군사들은 자신들도 그들처럼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을 포기하고, 임박한 전쟁에 대한 긴장감과 자제력을 보여준 이들이었습니다.

3) 그럼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기드온과 최종 300 명의 용사들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에 떨지 않고, 민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려 했던 이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4.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이 모두 선발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본격적인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1) **그날 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내려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9 절)
다른 성경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2) 적은 수로 두려워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용기와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10 절)
10 절,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 하나님은 성도에게 닥친 환난의 때에 언제나 용기와 위로를 더하십니다.
행 27:24–,"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 부하 부라는 누구일까?
✧ 부라는 오늘 본문 이외에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언급되지 않음.
✧ 학자들은 아마도 기드온이 바알 신당을 부술 때 함께 했던 10 명 중의 하나라 추정..

➢ 그를 대리고 가라신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적인 견해: 이스라엘이 승리하리라는 확실한 표적을 부라도 보게 하여 나머지 군사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5.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 _____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셨습니다.
1) 미디안 군사가 꾼 꿈 (13 절)
✧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꿈
2) 그 꿈을 들은 다른 군사의 해석 (14 절)
✧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3) 이것은 기드온과 그의 부하 부라를 <u>강하게</u>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10 절, "만일 네가 내려가기 두렵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 보라. 그러면 네가 그들의 하는 말을 듣고 <u>강하여</u> 지리라."

4) 하나님은 성도들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도록 역사하십니다.
5)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용기와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강한 믿음에 있습니다.

생각하기 1: 그리스도인들의 꿈에 대한 자세

1) 성경에 나타난 꿈에 대한 관점 : 부정 + 긍정

■ **꿈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 전도서 5:7,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신 13:1-3)
-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렘 29:8)

■ **꿈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 민 12:6,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리라"
- 마 1:20 이하: 꿈을 통해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 하심
- 마 2:12 이하: 꿈을 통해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 것을 지시

2) 꿈에 대한 심리학적 견해

■ **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 -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1800 년대 말에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저술 -"꿈을 통해 사람의 무의식적 욕구를 관찰 할 수 있다"고 선언! - 꿈 연구의 시초

■ **카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 -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로 분석심리학의 개척자.

- 꿈은 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무의식 속의 중요한 상징으로 생각!.
  첫째, 꿈은 매우 의미 있고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것. 둘째, 프로이드는 꿈을 단순한 성적인 에너지로만 이해했지만, 융은 심리적, 영적인 에너지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 (참고-아버지가 목사). 셋째, 꿈속에 나타나는 생각과 감정과 표현은 모두가 비합리적인 영상언어-상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봄.

- 융은 꿈의 해석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꿈을 꾼 당사자뿐이라 생각 - 다른 사람이 그의 꿈을 해석해서 결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다만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꿈 해석의 틀을 제시할 수는 있다.

■ **현대 심리학의 견해:**

꿈은 인간관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긴장과 갈등을 무의식 중에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 그럼으로 꿈을 잘 이해함으로 그 사람의 긴장과 갈등을 적절히 이해하고, 회복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Christian Psychologist 들의 견해

■ John A. Sanford, – "꿈은 개인의 정신적인 완성과 영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대 크리스챤 심리학은 꿈은 개인의 심리발달이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개인의 삶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럼으로 꿈을 통해 개인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현대의 크리스챤 심리학자들은 꿈을 **개인의 심리적 반응과 영성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 **6 가지 주의**

- 꿈 해몽사이트나 점쟁이, 술사 등의 거짓 해석자를 찾지 말 것
- 항상 꿈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 신중한 자세로 임할 것
- 덮어놓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말 것. (꿈은 상징적인 것!)
- 꿈을 의지하기 보단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할 것
- 성경의 내용과 가르침에 항상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 꿈을 멋대로 해석하고 급히 행동하지 말고, 만약 그 꿈이 개인적으로 의미심장하다 여긴다면, 꿈을 조용히 간직하고 기다릴 것.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

단 8:26,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4)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

만일 기드온이 같은 꿈을 꾸고 스스로 해몽했다면 얼마나 큰 확신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적병이 그 꿈을 꾸게 하셨고 또 다른 적병으로 하여금 그 꿈을 말하게 하셨다. 곧 어떤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면, 분명히 그 풀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만 한다는 것! --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권면을 통해.. etc.

6.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전략

1) 기드온은 300 명의 군사들을 3 진영으로 나누게 하고, 각 손에 _____과 빈 _____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_____을 감추게 했습니다.

2) 기드온은 자신을 따라 미디안 주위에서 다 나팔을 불며, "_____를 위하라! _____을 위하라!"고 외치게 하였습니다. 영어성경 : "For the Lord and for Gideon"

3) 이 외침은 그들이 가진 무기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기드온을 신뢰한다는 가장 강력한 "신앙고백" 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라? 그들의 소리를 듣고 적들이 침착하게 칼을 들고 공격해 왔다면, 과연 이들이 당할 수 있었을까? 곧 그들이 외쳤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사실이다!

- 참고: 20 절을 보면, 처음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는 표현에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 왜 그랬을까?

Matthew Henny : "입에서 나온 칼" 이란 별명을 붙였다.
적진에서 보초들이 서로 꿈을 풀이하면서 "기드온의 칼" 이라 했던 말을 인용하며, 신이 난 이스라엘 군사들이 외친 말일 것으로 해석..

7. 영적 전쟁에서 성도의 할 일은 오직 진리의 _____을 발하며, 당대히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일뿐입니다.

1) 기드온과 300 명의 용사들의 외치자, 미디안 병사들은 스스로 당황하며, _____끼리 칼로 치며 자멸하며 도망하였습니다. (21 절)
2) 결국 미디안 군대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하였습니다.

3) 기드온은 남쪽으로 도망하여 요단 강을 건너려는 적들을 차단하기 위해 _____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4) 에브라임 사람들에 의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참고: '오렙'의 이름의 뜻 – '까마귀', '스엡'의 이름의 뜻 – '이리'
어떤 학자 – "그들의 이름처럼 비열하고 악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최후는 처참하다"고 표현.

생각하기 2. 오늘 내용 속에서 개인적으로 새롭게 깨달은 내용 혹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고후 10:4 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